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4장 염려의 원인과 치료법

『산상설교』 하권 제44장, 인쇄 184~19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34

> ❓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왜 나는 자꾸 내일 일까지 끌어와 걱정하게 될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6:33)라는 절정 뒤에 왜 34절이 덧붙었는가? 그의 답은 이렇다. 염려는 거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버티는 강한 세력이고,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면 미래로 옮겨 가 계속 사람을 붙잡는다. 그래서 주님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따로 다루신다. 주님은 먼저 내일 걱정이 에너지만 낭비하고 오늘을 불구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임을 보이신다. 이어 상식적인 '하루씩 살기'를 넘어, 날마다 은혜를 몫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하루 단위로 의지하라고 하신다. 그다음 저축·보험·헌금 모금을 둘러싼 오해를 풀어 '대비'와 '염려'를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세 원칙을 정리한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은 스스로 적용해야 한다. 염려하는 생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 절별 정리

📜 1. 34절은 용두사미가 아니다 — 염려는 하나의 '세력'이다

로이드 존스는 34절이 처음에는 맥 빠진 덧붙임처럼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며 시작한다. 33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보다 더 높은 절정은

돌아와 그것을 삶 전체, 특히 미래로 넓히신다. 의식주 문제와 관련해 “염려하지 말라”를 세 번이나 말씀하실 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다. 그가 보기에 이 대목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염려를 어느 교과서보다 철저하게 분석한다. 염려는 뚜렷한 실체이자 힘이다. 눈앞의 문제로 사람을 누르지 못하면 미래로 옮겨 간다. 염려에 빠진 사람을 도와 본 이들은 그가 답을 들을 때마다 “예, 하지만…”이라고 말하며, 결국 “그런데 내일은요? 다음 해는요?”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이것이 귀신 들림이라고 과장하지 않는다. 다만 악령의 활동이 분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마귀가 몸이 약해진 상태나 타고난 근심 성향을 이용해 사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1. 34절은 33절 뒤의 반복이 아니라 확장이다
2. 염려는 거의 인격을 가진 듯한 세력이다
3. 해결해 주면 “예, 하지만…” 하며 버틴다
4. 사실이 없으면 상상으로 미래를 지어낸다
5. 마귀는 쇠약한 몸과 근심 기질을 이용한다

마태복음 6:33

34절 앞의 절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4

본문. 염려 문제의 결론을 미래로 넓힌다

>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25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진술. 의식주에 대한 염려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 **마태복음 6:31**
>
> 두 번째 진술. 세 번 반복될 만큼 중요하다는 근거
>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2. 염려의 어리석음 — 하루에는 하루의 몫이 있다

주님은 먼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어리석다는 것을 보이신다. 오늘만으로도 충분히 어렵다면 왜 미래까지 마주하러 가는가.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니 순전한 에너지 낭비다. 게다가 염려가 위협하는 파멸은 상상일 뿐이어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나쁜 점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정작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힘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타락 이후 삶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는' 노역이 되어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시련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남은 생애에 일어날 일을 모두 더해 오늘 지고 가면 삶은 무너진다. 하루에는 하루의 할당량이 있다. 그는 그 예로 나사로에게 가시려는 주님을 제자들이 만류할 때 주님이 하신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라는 대답을 든다. 그는 이것을 인류가 처음부터 실천해 온 오래되고 깊은 '생활 심리학'이라고 부른다. 전기를 읽어 보면 삶에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붙들지 않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한다. 반대로 밤새 “왜 그랬을까”를 되씹는 사람은 잠을 설쳐 또 실수하고, 다시 “다음 주는 어쩌지”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1. 염려는 바꾸는 것 없이 에너지만 쓴다
2. 염려가 그리는 파멸은 상상에 불과하다
3. 내일 걱정은 오늘을, 결국 내일도 불구로 만든다
4. 타락 이후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
5. 어제도 내일도 지고 다니지 말고 오늘을 살라

> **마태복음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창세기 3:19

타락 이후 삶은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역이 되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9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한 번에 열두 시간만 산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8:22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과거를 놓아 주는 태도의 표현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한 번에 열두 시간을 사셔야 합니다.”

📜 3. 상식에 머물지 말라 — 은혜는 날마다 몫으로 온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이 '생활의 지혜' 차원에 머물지 않으신다고 강조한다. 34절은 6장 전체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하며, 핵심은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삶을 열두 시간 단위로 나누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루 단위로 나누어야 한다. 위험은 하나님을 대체로는 믿으면서 삶의 특정 영역에서는 믿지 않는 데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일 년 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날마다 순종하면 된다.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맞고 날마다 맡기는 것도 맞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단번에 주셨다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은혜는 날마다 몫을 지어 주신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 은혜를 미리 저장해 두려는 것은 치명적 유혹이며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1.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도 같은 하나님이다
2. 대체로는 믿되 특정 영역에선 안 믿는 위험
3.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앞지르지 말라
4. 은혜는 날마다 그날 몫으로 주어진다
5. 은혜를 미리 쌓아 두려는 건 믿음 부족이다

> **신명기 33:25**
>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날마다 주시는 힘
>
>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 **히브리서 13:8**
>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내일 대신 그분을 생각하라
>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 **고린도전서 10:13**
>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되지 않고 피할 길이 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다
>
>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 **마태복음 6:33**
> 염려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문맥
>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날마다 일부분씩 몫을 지어 주십니다.”

📜 4. 저축과 보험은 잘못인가 — 대비와 염려의 경계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모으고, 궂은 날을 대비해 저축하고, 보험에 드는 것은 잘못인가? 로이드 존스는 “염려하지 말라”를 늘 “근심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로 읽어야 한다고 답한다.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니 사람도 농사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씨 뿌릴 때와 추수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밭을 갈고 돌보고 곳간에 들이는 농부는 내일을 위해 적절한 생각을 하는 것이며, 성경은 이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한다. 가만히 앉아 음식과 옷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다. 주님이 정죄하시는 사람은 씨를 뿌린 뒤 그것을 계속 걱정하며 미래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대비가 삶을 지배하고 오늘의 유용성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정당한 관심이 염려로 넘어가는 경계선이다. 미래 걱정 때문에 지금 도와야 할 선한 일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염려다. 늘 보험과 잔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께 정죄받는다.

그는 반대쪽 극단도 경계한다. 미래 대비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교회 일을 위해 헌금을 모으는 것은 불신앙이니 '믿음으로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주 첫날 헌금을 따로 모아 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의 은사'는 모든 신자가 가진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뜻대로 주시는 별도의 특별 은사다. 조지 뮬러와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나도 박사를 헌금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르셨다. 고아원 사역에서도 뮬러는 믿음과 기도로, 윗필드는 성도들에게 직접 헌금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다. 두 방식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다. 개인 삶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한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저축과 보험을 정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다만 균형을 늘 지켜야 한다.

1. “염려하지 말라”는 “근심·초조하지 말라”다

3. 대비가 삶을 지배하면 그때 염려가 된다
4. 미래 걱정에 오늘의 섬김이 막히면 잘못이다
5. 믿음 사역과 헌금 호소, 둘 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마태복음 6:26

새 비유는 농사를 금하는 말이 아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대상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34

금지하는 것은 대비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근심이다

>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고린도전서 16:2

매주 첫날 헌금을 모아 두라는 바울의 지시. 미래 대비의 정당성

>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2:9

믿음의 은사는 일부에게 주시는 특별 은사이며 모두의 규칙이 아니다

>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 5. 세 원칙 — 누구의 약속인가, 믿음을 적용하라, 생각을 거부하라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는 가르침을 세 원칙으로 정리한다.

답한다. 궁핍의 큰 원인은 술과 허영 같은 부모의 죄인 경우가 많다. 다윗의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는 의인에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그러나 '의인'은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이 약속은 직계 자녀까지만 해당하며, 방탕한 손자에게까지 영원히 미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기독교 교리 위에 서 있으므로 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염려는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믿음은 저절로 작동하거나 자라지 않는다.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며,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상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은 자라기 시작한다.

셋째, 가장 실제적인 원칙은 염려하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합당한 일을 다 했다면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마귀가 불화살처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넌지시 들이밀 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오늘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일도 의지하겠다. 네 생각은 받지 않겠다.” 우리는 짐을 이미 주님께 던졌으므로 믿음은 그 짐을 다시 지기를 거부한다.

1. 돌봄의 약속은 의인·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다
2. 의인은 신앙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3. 믿음은 자동이 아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라
4. 할 일을 했다면 그 이상 생각하기를 거부하라
5. 마귀의 불화살 같은 생각에 “아니다”라고 하라

> **시편 37:25**
> 의인과 그 자손은 버림받지 않는다. 약속의 대상이 의인임을 보여 준다
>
>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 **마태복음 6:33**
>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조건

시편 42:5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어 믿음을 적용하는 본보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6:16

악한 자의 불화살. 염려하는 생각을 밀어 넣는 공격의 정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짐을 질 것을 거부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염려

정당한 대비를 넘어 미래의 일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근심과 초조의 상태다.

하루의 할당량

하나님이 하루에 정해 주신 만큼의 문제와 수고로, 내일 몫을 오늘로 끌어오지 말라는 뜻이다.

타락

아담의 죄 이후 세상이 바뀌어 삶이 수고와 시련을 동반하게 된 사건이다.

유용성

믿음의 은사
구원받는 믿음과 달리, 성령이 일부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 주시는 별도의 은사다.

의인
신앙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불화살
마귀가 마음에 몰래 쏘아 넣는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에베소서의 표현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염려는 해결해 줘도 미래로 옮겨 가는 강한 세력이며, 34절은 그 본성을 아시는 주님의 처방이다.
- 내일 걱정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오늘을 불구로 만든다. 하루에는 하루의 몫만 지면 된다.
- 은혜는 날마다 몫으로 주어지므로 미리 저장하려 하지 말고 그날그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 저축과 보험 같은 대비는 정당하다. 그것이 삶을 지배하고 섬김을 막을 때 염려가 된다.
- 약속은 의인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은 스스로 적용해야 하며, 염려하는 생각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